

나주시-광양시, 고향사랑기부로 상생협력 강화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 위한 관광 홍보 연계

전남 나주시가 광양시와 고향사랑기부제를 매개로 교차 기부와 관광 홍보를 연계한 상생협력 모델을 구축하며 ‘2026 나주방문의 해’ 성공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에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나주시에 따르면 전남 광양시 산단택지와 관계자들이 나주시를 방문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와 ‘2026 나주방문의 해’ 홍보를 위한 교차 기부를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단순한 기부를 넘어 양 지자체 간 교류 협력을 강화하고 고향사랑기부제를 기반으로 한 지속 가능한 상생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나주시는 광양시 산단택지과를 초청해 상호 교차 기부를 진행하고 목사내아

등 주요 관광지를 함께 둘러보며 ‘2026 나주방문의 해’ 홍보 활동을 병행했다.

특히 기부 참여가 실제 지역 방문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광자원과 연계한 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창출에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교차 기부를 계기로 향후에도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과 지역 간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나주시는 앞으로 외부 지자체와의 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기부와 관광이 선순환하는 연계 모델을 통해 ‘2026 나주방문의 해’의 성공 기반을 공고히 할



방문이다. 조정임 관광문화복지국장은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간 교류와 협력을 이끄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있다”며 “이번 광양시와의 교차 기부를 통해 나주방문의 해가 더욱 널리 알려지고 실제 방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노사합동 ESG경영 실천 ‘아나바다 바자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영희)는 4월 9일(목), ESG경영 및 지역사회 나눔 실천을 위한 ‘아나바다 바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바자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와 함께 추진한 노사협력 사회공헌 활동으로 광주서부지사, 광주북부지사, 광주동부지사도 동참하여 의미를 더했다.

이번 행사는 자원 재사용과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와 협력하여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직원들이 자

발적으로 기부한 물품 1,000여 점과 업사이클링 및 공익상품 등이 판매되었으며, 안 먹는 약 수거 등 ESG경영 실천 이벤트도 진행됐다.

이날 바자회를 통해 조성된 수익금 500만원은 지역 내 취약계층을 지원하는데 전액 기부될 예정이다.

이영희 본부장은 “이번 바자회는 노동조합과 직원들이 함께 뜻을 모아 추진한 사회공헌으로 상생의 가치를 실천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ESG경영 바탕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전라제주지역 본부는 △자원 순환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상생 등 ESG경영을 적극 실천하며, 지속가능한 사회적 가치 창출에 앞장 서고 있다. 이승원 기자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랑의한끼 먹고 행복영화관으로”

한 끼의 온기, 한 편의 감동, 어르신들 마음에 봄을 담다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정명홍-임창복)가 마련한 ‘사랑의 한끼’와 ‘행복영화관’ 연계 사업이 지난달 31일 동명·점수·신풍마을 어르신 40여 명의 참여 속에 따뜻한 감동을 전하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어르신들은 지역 식당 ‘짜장꽃’에 모여 짜장면과 짬뽕, 볶음밥 등 정성껏 준비된 식사를 함께 나누며 오랜만에 이웃과 정을 나눴다. 식사 자리에는 웃음꽃이 피었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소박한 대화 속에서 마을 공동체의 온기가 다시 살아났다.

이어 어르신들은 강진 작은영화관으로 이동해 팝콘과 음료를 곁들인 영화 관람을 즐겼다. 상영작 ‘왕과 사는 남자’는 웃음과 눈물을 동시에 안기며 어르신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적셨다. 오랜만에 경험한 문화생활에 어르신들의 얼굴에는 설렘과 행복이 가득했다.

행사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이웃들과 함께 밥을 먹고 영화를 보는 일이 이렇게 큰 기쁨이 될 줄 몰랐다”며 “작은 배려가 큰 행복으로 다가온 하루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식사 지원을 넘어 문화 체험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정서적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기획됐다. 실제로 참여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며 지역사회 복지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정명홍 민간위원장은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일상 속에서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



복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맞춤형 복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강진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

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서적 돌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강진/손경설 기자



시민과 함께하는 한국 숲사랑 문화행사

‘생명의 숲 산불예방·무궁화 사랑’ 제9회 총회 축하콘서트

사단법인한국 숲사랑 총연합회 중 앙회는 4월 11일(토) 상무 시민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제9회 총회 축하콘서트 & 숲사랑 문화행사’를 성황리에 마쳤다.

숲사랑 문화행사는 4월 11일(토) 오후 2시에 시작하여, 1부 공식행사, 2부 축하공연으로 미스트롯 4 초대 가수의 축하공연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숲은 생명의 숲 위는 삶의 터전이다’를 기반으로 숲을 아끼고 사랑하고, 숲을 다양한 가치를 높 이도록 하며 숲을 울창하게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산림청과 연계하여 총재 이승암과 전국 각 지역의 총재들이 참여하고 각 기관단

체들이 함께 축하해주며 시민과 함께 숲사랑 문화행사를 통해 숲 사랑과 즐거움을 선사하였다.

행사는 ▲공식 행사 -산림현장 낭독, 표창패 전달식, 결산, 예산(안)심의 등 ▲2부 미스트롯 김수빈, 김혜진, 김산하 축하공연 ▲경품추첨 등이 준비되어 무료로 입장으로 시민들과 함께 즐길 수 있었다.

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숲사랑 문화 행사에 공식 행사 & 축하공연으로 숲 사랑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앞으로 숲에 대한 실천을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 할 수 있었다. /전혜림 기자



담양군,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현장 활동

수북면 정중마을 5가구 대상 주거 환경 개선 및 안부 살피

담양군이 지난 8일 지역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해 ‘우리동네 복지기동대’ 현장 활동을 펼쳤다. 우리동네 복지기동대는 이장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웃에게 다양한 생활 밀착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찾아 전기와 수도 시설 점검·수리, 안전 손잡이 설치, 주거 환경 개선, 생필품 지원 등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활동은 수북면 정중마을 주민 5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기동대원들은 태양광 안심등 설치와 함께 노후 전선·전등을 교체했으며, 어르신들의 안부를 묻고 말벗이 되어드리는 등 마음 나누기에도 힘을 쏟았다.

특히 담양소방서 119생활안전순찰대와 한전MCS가 소화기를 지급하고 기초 건강 상담을 진행하며 힘을 보탰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촘촘한 복지 안 전망을 구축해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담양/이종욱 기자

전라남도 Jeollanamdo 구례군 Gurye County

제65회 2026. 4. 10.(금) ~ 4. 13.(월) 전라남도체육대회

제34회 2026. 4. 22.(수) ~ 4. 24.(금)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구례군공설운동장 외 종목별 경기장

주최 전라남도체육회 / 전라남도장애인체육회
 주관 제65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조직위원회 / 제34회 전라남도장애인체육대회 추진위원회
 후원 전라남도 / 전라남도교육청 / 구례군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